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생명샘 장로교회
Spring Well Presbyterian Church

생명의 말씀이 샘솟는 교회
springwellpc.org
2025 S. Goebbert Rd. Arlington Hts.
Tel) 630.673.9207



주일 예배 2026년 2월 8일 오후 1시

인도/박화신 목사 반주/김현경

합심 기도 / 다같이

*찬송 /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 찬송가 20(신) 40(구)

*성시 교독 / 성시 교독문 10번 (시편 16편) / 다같이

*신앙 고백 / 사도신경 / 다같이

찬송 / 슬픈 마음 있는 사람 / 찬송가 91(신) 91(구)

기도 / 조창 집사

성경 봉독 / 마태복음 13장 44-46절 / 다같이

말씀 선포 / 값을 다시 매기다 / 박화신 목사

찬송 / 나는 예수 따라가는 / 찬송가 349(신) 387(구)

교회 소식 / 다같이

*폐회송 / 이 천지간 만물들아 / 찬송가 5(신) 3(구)

*축복 기도 / 박화신 목사

오늘 설교 말씀 요약

1.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만들어 내는 이상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 속한 통치입니다. 비울은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음이라”(고전 4:20)고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설명되는 이론이 아니라 삶을 바꾸는 능력이며, 성령 안에서 나타나는 의와 평강과 기쁨(롬 14:17)이라는 실제적인 힘입니다.

2. 예수님은 그 나라를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값진 진주에 비유하셨습니다(마 13:44-46). 보화는 이미 있었고, 발견한 사람이 기쁨으로 모든 것을 정리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새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 가치를 깨닫고 발견하는 것입니다.

3.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기쁨을 사모하는 경건이 있을 때, 우리는 그 나라를 귀하게 여기게 됩니다. 그 가치를 알게 되면 다른 것들이 자연히 자리를 바꿉니다. 하나님 나라는 먼 미래의 약속이 아니라, 지금 발견하고 기쁨으로 불드는 삶의 현실입니다.

생명샘 장로교회 2026년 표어

복음,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교회 막1:15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지난 주일 설교

불드는가 이용하는가

마 6:19-34

1. 약점을 이용하는 전략

광야에서 사탄은 예수님의 배고픔을 정면으로 건드립니다. 육체가 가장 약해진 순간,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이라고 말합니다. 결핍과 정체성을 동시에 자극하는 방식입니다. 필요를 해결하라는 제안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지 말고 스스로 능력을 사용해 아들됨을 증명하라는 요구였습니다. 시험의 핵심은 땅이 아니라 ‘방식’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인도하심을 신뢰할 것인가, 아니면 상황을 근거로 스스로 결정할 것인가. 사탄은 약점을 통해 죄를 강요하기보다, 약점을 이용해 순종의 자리를 흔듭니다.

2. 말씀을 불드는가, 이용하는가

사탄은 말씀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인용합니다. 그러나 그는 말씀 아래 서지 않습니다. 말씀을 끌어와 자신의 제안을 정당화합니다.

말씀을 불드는 사람은 말씀이 자신의 판단을 교정하도록 허락합니다. 그러나 말씀을 이용하는 사람은 이미 정해 놓은 결론을 위해 말씀을 사용합니다. 겉으로는 동일하게 성경을 말하지만, 중심은 다릅니다. 순종이 빠진 인용은 믿음이 아니라 자기 확신을 강화하는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3. 머물로 이기신 주님

예수님께서는 어떤 능력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기록되었으되”라고 응답하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암송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 자신을 두겠다는 선택이었습니다. 상황은 변하지 않았지만, 방향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성령충만은 시험이 사라지는 상태가 아니라, 시험 한가운데서도 말씀을 떠나지 않는 상태입니다. 광야는 오늘 우리에게 뭉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불들고 있습니까, 아니면 필요를 위해 이용하고 있습니까. 그 차이가 결국 우리의 길을 가릅니다.

생명샘소식

1. 생명샘 장로교회의 주일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예배를 통해 주님의 영광을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2. 2026년 교회 표어를 ‘복음, 하나님 나라를 사는 교회’로 합니다. 복음을 말로만 고백하는 데서 머무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를 오늘의 삶 속에서 살아내는 교회의 정체성을 담은 표어입니다. 우리 교회는 예배와 말씀, 교제와 섬김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우리의 삶과 공동체 안에서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3. 교회 홈페이지에 실리는 매일성경을 통해 말씀과 동행하시길 축복합니다.
4. 목적헌금으로 들어온 장학금(\$1,000) 전달하였습니다. 현금을 해주신 분에게 감사드립니다.
5. 매주 금요일 저녁 8시에 있는 사도행전 성경공부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6. 새로운 목장 첫 모임이 2월 28일 토요일에 있습니다.

미얀마 목장 / 한규철(목자) 김정신 서민정 윤진 한광기 한미숙 한정임
파라과이 목장 / 조창(목자) 박래석 박승화 조은영 최명희 최상천

2월 예배 위원

안내 한규철 김정신

기도 한미숙(1) 조창(8) 박승화(15) 한광기(22)

교회 모임 안내

주일 예배	EM 예배	교회 학교	EM 성경공부	제직 성경 읽기	금요 성경 공부	목장 모임
주일 오후 1시	주일 오후 1시	주일 오후 1시	주일 오후 3시	월요일 저녁 7시 30분	금요일 저녁 8시	매달 네번째 토요일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천국은 숨겨진 보화처럼, 발견하기 전까지는 세상의 가치와 별반 다를 바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그 순간을 경험한 사람은 삶의 우선순위가 완전히 뒤집힙니다. 지금 내가 쌓고 있는 것들—안정, 명예, 편안함—모두가 한순간 하찮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진정한 발견은 나를 흔들고, 나를 도전하게 하고, 나를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결단’으로 몰아넣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만난 사람은 더 이상 안전지대를 지키려 하지 않습니다. 보화를 발견한 사람처럼, 자신의 삶 전체를 걸고 하나님께 뛰어드는 용기를 선택해야 합니다.

이 말씀은 단순한 교훈이 아니라, 나를 지금 당장 변화시키고 삶을 혁명적으로 재정비하라는 초대입니다.

